

서울 심터, 작은빛공동체

글_ 김언영 · 레드리본 기자

전통적 유교관념이 강한 국내 환경에서 에이즈라고 커밍아웃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많은 감염인·환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병명을 숨긴 채 홀로 외로운 질병과의 싸움을 견뎌내고 있다. 특히 입원 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곳이나, 경제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는 감염인·환자들에게는 심터라는 가족공동체가 필수적이다.

1994년 4월 1일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서울 심터(작은빛공동체)를 방문하여 그곳의 생활을 취재하였다.

심터방문은 극히 제한적이며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동행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리부장 말씀처럼 절대 같은 길로는 다니지 않을 만큼 주변의 눈에 띄는 행동은 극히

자제를 한다. 마침 도착한 시각은 점심 때가 막 시작된 12시경. 식사를 끝내고 아르바이트장소로 향한다는 한 감염인은 대문 옆에 붙어있는 웅색한 거울에 새로 한 머리칼을 살짝 빗기며 알터로 향하고, 거실에서는 뷔페식인 밥상을 챙기는 식구들로 북적거린다.

식사는 셀프임에도 방문객을 위한 특별식이라며 꽃게찌개, 잡채 그릇을 기차 앞으로 내민다. 여느 가정의 식사시간처럼 농담이 오가고, 편식하는 식구에게는 수녀님이나 봉사자의 우려섞인 잔소리가 이어진다.

식사시간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후식에는 전자레인지로 찻잔의 찬기운을 없애고, 커피에 데운 우유를 섞어 감동을 준다. 모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서울 심터지만 손님대접에서는 아낌없다. 이런 살뜰한 챙김이 그리워서인지 서울 심터를 거쳐 독립한 감염인들이 톱툰이 찾아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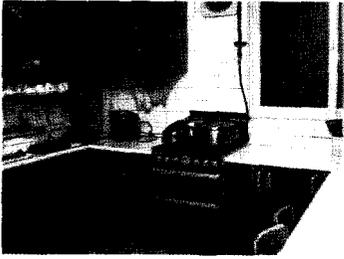
심터에 요양하는 사람은 총 10여 명으로, 과반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이고,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건강한 식구들은 낮시간 동안 일터로 향하고 심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심터는 규제가 아닌 '사랑'의 보금자리

"심터라고 해서 수용소같이 규율이 있는 생활인 줄 알았



▲ 서울 심터의 방 _ 왼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기거하는 침대방이고, 오른편은 감염인이 사용하는 방



▲ 위로부터 거실, 주방, 약제함

어요.” 처음 입소시 많은 식구들은 자신을 규제하고 강제하는 수용소를 떠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젠 ‘여기가 최고’라고 할 만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물론 9시 까지의 기상, 청소, 12시의 점심 식사 등 포괄적인 규칙이 있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쉼터 보호자인 수녀님과 자원봉사자, 직원들은 식구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도록 보살핀다.

특히 쉼터 보호자들은 쉼터의 안락한 삶으로 인해 식구들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가 해나가기를 원한다.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도록 독려한다. 그래서인지, 쉼터에 들어서는 곧 북어귀부터 쓰레기라곤 찾아볼 수 없다.

정신과 육체 모두를 보양할 수 있는 곳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진환과 관련해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쉼터의 큰 장점의 하나죠.”

기자가 만난 쉼터 식구들이 입을 모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신분공개’에서 오는 해방감이다. 쉼터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하지도, 무슨 약을 먹는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그들 모두 병원에서 혹사나 이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하여 감염내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앞에서 서성였던 일, 병원에서 친구를 만나 진료를 내팽겨치고 택시타고 도망친 일 등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그대로 노출해서 오는 해방감을 만끽한다.

쉼터에서는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감염내과 전문의의 방문진료, 쉼터 식구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그룹테라피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한번씩 미사 등 종교적 혜택을 받고 있다.

쉼터에서는 식구들이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서적인 충만감을 주기 위해 꾸준히 문화생활을 기획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쉼터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은 물론 감염인·환자들이며 이들을 북돋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수녀님과 자원봉사자, 간호사들이다. 특히 목욕봉사, 산책, 오락봉사, 기도문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크다.

서울 쉼터는 아랫층에 방3, 거실, 주방, 욕실이, 윗층에 방2, 수녀님 숙소와 사무실, 거실, 주방, 욕실로 꾸며져 있다. 서울 쉼터는 환자든 건강한 감염인이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족공동체이다.

※ 쉼터입소 문의 | 02)2675-4111